

지역 매 아리

부안군, 환경업무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부안군이 환경업무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소속감 고취 등을 위해 24일 부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환경업무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부안군 환경미화원과 환경경찰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했으며 족구·배구 등 체육경기와 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안군은 행사 당일 쓰레기 사백 조기 수거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했다.

또 체육대회에 이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의식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소속감 고취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서울 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센터와 협약 체결

정읍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24일 수성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서울 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정읍·해방촌 센터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두 지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수행과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두 센터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두 지역 협의체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쌍화차 거리와 쌈고을시장 등을 현장답사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을 방문했다.

두 지역은 협약을 통해 양 센터와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사업 추진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재래시장(정읍 쌈고을시장, 해방촌 신흥시장)과 마을기업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바탕으로 두 지역의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5월 설립된 정읍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지구별 3개의 현장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핵심 추진사업 '총력'

유진섭 시장,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 상임위 미반영 4개 사업 증액 요청

유진섭 시장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오가며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 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정읍시 현안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유 시장은 문 의장과 면담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지역 핵심 추진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정읍시 민방위 실천체험훈련장 건립과 내장산 자생식물원 조성, 천연물 소재 기반 신약 비임상 유효성 실증센터 구축 등 4개 사업(897억원)을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유 시장은 문화상 국회의장과 면담 이후에도 유성영 의원(지역구)과 김광수 의원(예결위), 김병관 의원(행안위) 등을 면담했다.

정읍시의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와 지원을 해 줄 것을



유진섭 정읍시장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오가며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요청했다. 유진섭 시장은 "국회 단계에서 정읍시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물론 증액과 추가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가 종료되는 오는 12월 2일까지 정치권과 중앙부처 항우 인사 등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국가 예산 6천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 확보는 물론 주요사업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첨단과학관, 꿈나무 시티투어 '인기 만점'

신정동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 정읍첨단과학관이 스텝투어와 시티투어를 운영하며 방문문의가 쇄도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첨단과학관은 지상 2층 규모의 과학관으로 정읍시 소재 3개 국책연구기관의 첨단과학기술(RT, RFT, BT)로 개발된 연구 성과물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 건립 부지에서 출토

된 삼한 시대 유물 36점이 전시돼 있고 4D 입체영화 상영으로 문화와 과학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국립전북기상과학관과 정읍과학관은 스텝투어를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집 등 단체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정읍의 문화와 역사탐방 프로그램인 꿈나무 시티투어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의 단체방문도 꾸준

히 이어지고 있다.

첨단과학관을 방문한 한 학생은 "첨단과학관에 와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들으니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중·고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주고 정읍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첨단 과학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과학관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스마트 지킴이' 무상지원 업무협약 체결

고창군이 24일 고창경찰서, 한빛원 자력본부와 함께 지적장애인·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 지킴이' 무상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실종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손목시계형 단말기를 무상 지원하며 기기사용료(월 2500원)를 2년간 지원한다.

'스마트 지킴이'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단말기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보호자는 위치 확인과 간단한 통화가 가능하고, 단

말기 착용자가 일정지역을 벗어나면 미리 등록된 가족과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

'스마트 지킴이' 기기와 2년간 사용료는 한빛원자력본부 임직원 기부금으로 지원하며 고창군은 지원대상자 명단(136명)을 고창경찰서에 전달했다. 고창경찰서에서는 지원자 선정 후 기기보급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한다. 고창군과 고창경찰서는 협약만료(2년) 전 추가 사용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실종위험이 높은 지적장애인·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해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창군은 돌봄 기능이 점점 더 약화되어가는 가족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시민 소통 행정 위한 언론인 정례브리핑 가져

정읍시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10월 두번째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은 유동욱 경제환경국장 이 국 관할 5개 과와 1개 소의 주요 현안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유동욱 국장은 브리핑에 앞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읍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주는 언론인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우리 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더불어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 소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해야한다"며 경제환경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철도산업 농공단지 조성 ▲일반농산어촌개발 선정 ▲월영습지·솔티숲 생태관광지 조성 ▲내장

산 자연휴양림 조성 ▲태인 축구장 조성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이날 사업 설명 후 열린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논의 시간을 가졌다.

유 국장은 "경제환경국의 모든 직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함께 성장하는 발전의 정읍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시는 올해 2월부터 매월 둘째와 넷째 목요일에 시청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다.

해당 국·단·실과소장이 직접 브리핑을 담당하며 충분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브리핑은 도시안전국 핵심 현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오늘부터 부안 가을꽃 국화 및 축제를 부안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한다.

국화꽃 향기로 만나는 가을

부안 가을에 국화 및 축제 오늘 광파르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제1회 부안 가을꽃 국화 및 축제를 부안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국화꽃 향기로 만나는 가을'을 테마로 국화울타리 화단 50여명이 1년간 직접 가꾼 조형작, 다룬대자, 입국자, 분재작 등 2만 1000여점의 생동감 있는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화 조형작과 다룬대자에 오색의 110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는 빛 축제도 함께 열린다.

국화와 어울리는 부대행사로 클라무·아리랑오케스트라 130명의 협연, 풍물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준비돼 있다.

특히 28일 오후 6시 개최되는 개막

식에는 2023년 제2회 부안 새민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와 부안군이 미래로 세계로 한차게 약진하기를 기원하는 국화 및 점등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축제를 주관하는 국화울타리 김명섭 회장은 "출품작 모두 회원들이 1년 동안 정성과 애정 어린 손길로 키워 내 놓은 소중한 향기로 밤에는 찬란한 빛으로 군민들과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길러 낸 국화작품은 판매해 농업 소득자 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했다"며 "관객과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준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o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also lists prices for different gift sets like 'GIFT SET 1A', 'GIFT SET 2A', etc.